2020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DAEWON CULTURAL FOUNDATION 2020 NEW YEAR'S CONCERT

2020. 1. 5.(일) 8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주관 대원문화재단 DAEWON Cultural Foundation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서울시향의 5년 만의 재회, 그 첫 무대

대원문화재단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활기찬 출발을 기원하며 세 번째 신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재단은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무대와 객석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신년음악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신년음악회는 2006년 제1회 대원음악상 대상에 빛나는 지휘자 정명훈,
2011년 제6회 대원음악상 대상 수상자인 서울시립교향악단,
그리고 2013년 제7회 대원음악상 연주상을 차지했던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의 협연으로 진행됩니다.
역대 대원음악상 수상자들만으로 꾸려진 라인업에 정명훈과 서울시향의 5년 만의 재회라는 의미까지 더해졌기에
더욱 반갑고 뜻 깊은 무대라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에서는 독일 낭만주의의 정수를 잘 보여주는 작품 두 곡이 나란히 무대에 오릅니다.
먼저 1부에서 연주될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은 작곡가 특유의 아련한 시정과 호소력 짙은 서사가
듣는 이의 귀와 마음을 매혹하는 동시에 멘델스존의 선례를 발전적으로 변용한 구축미가 돋보이는 명작입니다.
다음으로 2부에서 연주될 브람스의 '교향곡 제1번'은 한층 진중하고 장대한 노작으로
베토벤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 교향악사에 새로운 금자탑을 세우고자 했던
작곡가의 결연하고도 치열했던 투쟁과 숙고의 산물입니다.

아울러 두 곡은 공히 비극적 정념과 고뇌의 극복을 통해서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상승하는 결말을 지향하고 있지요.
아무쪼록 이 음악회가 선사해드릴 감동과 여운 속에서
또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갈 감흥과 동력을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2018 제1회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차이콥스키의 밤'
2018. 1. 25.(목)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

지 휘 바실리 시나이스키 Vassily Sinaisky
피아노 백건우 Kun Woo Paik
연 주 서울시립교향악단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PROGRAM
차이콥스키 | 피아노 협주곡 1번
Tchaikovsky | Piano Concerto No.1 in B-flat Minor, Op.23

차이콥스키 | 교향곡 5번
Tchaikovsky | Symphony No.5 in E minor, Op.64

2019 제2회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
2019. 1. 4.(금)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

지 휘 요엘 레비 Yoel Levi,
피아노 조성진 Seong-Jin Cho,
연 주 KBS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PROGRAM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3번
S. Rachmaninoff | Piano Concerto No. 3 in D minor, Op. 30

차이콥스키 | 교향곡 6번 '비창'
P. I. Tchaikovsky | Symphony No. 6 in B minor, Op. 74 'Patheque'

소통과 공감, 나눔을 지향하는 신년음악회에 초대합니다.

대원문화재단의 세 번째 신년음악회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대원문화재단 신년음악회는 음악을 통한 소통과 공감, 나눔을 지향하는 저희 재단의 활동을 상징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특히 역대 대원음악상 수상자들인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클라라 주미 강이 출연하여 자신들의 장기 레퍼토리를 들려줄 예정이어서 더욱 뜻 깊고 풍성한 음악의 성찬이 펼쳐지리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과거 국내 클래식 음악계의 중흥을 이끌었던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서울시향이 5년 만에 재회하는 무대라는 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대립과 반목, 갈등과 혼란이 만연해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격동의 시대에 불굴의 의지와 인류의 화합을 부르짖었던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정신과 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절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베토벤의 유지를 받들어 어지러웠던 낭만주의 시대의 한복판에서 희망과 이상을 노래했던 막스 브루흐와 요하네스 브람스가 남긴 대표작들을 음미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브루흐와 브람스는 교육자 내지 후원자로서 음악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브람스의 후원이 없었다면 안토닌 드보르자크가 국제적인 작곡가로 발돋움하기는 불가능했거나 어려웠겠지요. 아울러 구스타프 말러가 빈 궁정 오페라에 입성하는 과정에도 브람스의 영향력은 비중 있게 작용했습니다.

저희 재단도 우리 음악계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터이니 부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음악회는 그에 대한 저희의 작은 약속이자 다짐입니다.

2020년 1월 5일
대원문화재단 이사장
김 일 곤

지휘 정명훈
Myung-Whun Chung, conductor

바이올린 클라라 주미 강
Clara-Jumi Kang, violin

연주 서울시립교향악단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막스 브루흐 (1838-1920) 25분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g단조 작품 26 (1866/68)

Max Bruch
Violin Concerto No.1 in G minor, Op. 26

Vorspiel: Allegro moderato
Adagio
Finale: Allegro energico

INTERMISSION 15분

요하네스 브람스 (1833-1897) 45분
교향곡 제1번 c단조 작품 68 (1862-76)

Johannes Brahms
Symphony No.1 in C minor, Op. 68

Un poco sostenuto - Allegro
Andante sostenuto
Un poco allegretto e grazioso
Adagio - Allegro non troppo, ma con brio

본 공연은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로 진행되나, 대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전석 초대공연입니다.

Max Bruch
Violin Concerto No.1 in G minor, Op. 26

막스 브루흐(1838-1920)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g단조, 작품 26 (1866/68)

막스 브루흐는 1838년 쾰른에서 태어나 1920년 베를린 근교에서 세상을 떠난 독일의 작곡가이다. 만하임, 코블렌츠, 리버풀, 브레슬라우 등지에서 지휘자로, 또 베를린 음대의 작곡과 교수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브루흐는 생전에 '합창음악의 대가'로 이름을 날렸고, 합창곡을 위시하여 극음악, 실내악, 관현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하지만 오늘날 그의 명성은 주로 협주곡 장르에 치우쳐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스코틀랜드 환상곡',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콜 니드라이' 등의 세 곡에 거의 모든 인기가 집중되어 있다.

브루흐는 주로 19세기 후반, 즉 독일에서 후기 낭만주의 음악이 절정을 구가하고 있을 때 활약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음악에서는 후기 낭만주의 특유의 농밀한 정감과 풍부한 색채가 전면에 부각되며, 동시에 독일 음악의 전통적인 양식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형식미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는 독일의 전통적 양식과 민족적 표정을 낭만적 흥취에 실어 표현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는데, 그러한 능력이 가장 눈부시게 표출된 사례가 바로 첫 번째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이 협주곡은 멘델스존, 브람스의 작품들과 더불어 독일 낭만주의 바이올린 협주곡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브루흐가 이 곡에 착수한 것은 아직 고향에 머무르던 1859년의 일이었는데, 탈고는 무려 7년이 흐른 뒤인 1866년 코블렌츠에서 보았다. 그러나 그 해 4월 초연을 치른 후 작품에 불만을 느낀 브루흐는 이내 개정 작업에 들어갔고,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요제프 요아힘의 자문을 구했다. 개정을 마친 협주곡은 1868년 1월 요아힘에 의해 초연되었고, 이후 파블로 사라사테 등에 의해 다루어지면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협주곡에는 브루흐만의 독창적인 선율 감각, 감미로운 서정성과 유장한 서사적 호흡, 그리고 장려한 극적 구축미가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전곡은 세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첫 악장은 '전주곡'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1악장 : 먼저 팀파니가 여린 연타를 깔아놓으면 목관이 그에 이끌려 조용한 화음을 내놓는다. 곧이어 독주 바이올린이 등장해 즉흥적인 카덴차를 연주하면서 긴장감을 서서히 고조시키고, 그 절정에서 관현악의 총주가 커다랗게 떠오르며 주제부로 진입한다. 여기서부터 음악은 호방하고 대담한 제1주제와 온화하고 유려한 제2주제를 중심으로 힘차게 전개된다. 가곡풍으로 이어지는 선율의 흐름이 아름답고, 화려한 기교를 과시하는 독주 바이올린과 색채적인 관현악의 대비가 절묘하다. 이 악장의 독특한 형식미는 발전부의 축소와 재현부의 생략으로 나타나는데, 재현부의 자리는 다음 악장을 예비하는 경과부가 대신하고 있다. 그 경과부의 끝에서 바이올린이 하나의 음을 길게 유지하면, 음악은 지극히 감미로운 선율로 넘쳐나는 둘째 악장으로 중단 없이 이행한다.

제2악장 : 사뭇 관능적이면서도 애잔한 흐름과 절절한 호흡으로 풍부한 감흥을 자아내는 느린 악장이다. 수줍은 듯 나직하게 이어지는 선율, 무언가 사무치도록 갈망하는 듯한 선율, 다채로운 장식이 가미된 매혹적인 선율 등이 차분하게 엮여나가며 풍부한 감흥을 자아낸다.

제3악장 : 힘차고 눈부신 피날레 악장으로, 행진곡풍 주제와 우수 어린 주제가 열정적으로 교차하면서 장쾌한 클라이맥스를 이끌어낸다.

요하네스 브람스(1833-1897)
교향곡 제1번 c단조, 작품 68 (1862-76)

청년 브람스가 교향곡 창작에 도전했던 19세기 중엽, 유럽 음악계는 한계상황에 맞닥뜨린 상태였다. 베토벤이 아홉 편의 교향곡을 남기고 떠난 뒤, 그 뒤를 이은 교향곡 작곡가들은 하나같이 '악성(樂聖)'의 그림자 속에서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슈베르트, 멘델스존, 슈만 등이 나름대로 가치 있고 매력적인 교향곡을 내놨지만, 그 중 어느 것도 베토벤이 구축한 산맥을 넘어서지는 못 했다. 그런가 하면 베를리오즈, 리스트, 바그너 등은 정면돌파 대신 '표제 교향곡', '교향시', '악극'과 같은 우회로를 선택했다. 더 이상 '순수 교향곡'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고, 그러한 인식은 브람스가 했던 유명한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Johannes Brahms
Symphony No.1 in C minor, Op. 68

"등 뒤에서 들려오는 거인(베토벤)의 발소리를 의식하면 도저히 교향곡을 쓸 엄두가 나지 않고, 그 거인의 아홉 곡에 비해 내 작품이 과연 존재가치가 있을까 생각하면 자꾸만 주저하게 된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내야 할 일이었다. 브람스에게는 일찍이 멘토 슈만이 일깨워준 소명의식이 있었고, 그를 적극 지지했던 비평가 한슬리크가 시사했듯이 그의 창작여정이 도달해야 할 극점이 바로 '교향곡'이기도 했다. 다만 브람스는 역시 그답게 신중했다. 교향곡에 대한 첫 도전(그 연장선상에서 탄생한 곡이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이다)이 실패로 돌아간 후, 그는 두 편의 '세레나데', 대작 '독일 레퀴엠', 그리고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등을 쓰면서 관현악 작품에 대한 감각과 수완을 차근차근 진전시켜 나갔다. 다시 말해 그는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구상과 역량을 꾸준히 갈고 닦고 다져나갔던 것이다. 브람스가 처음 교향곡을 쓰기로 마음먹은 시점은 1854~55년경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첫 악장의 초고가 마련된 것은 그로부터 7년 뒤인 1862년이었고, 전곡이 완성된 것은 다시 14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그 사이 브람스는 20대의 청년에서 40대의 중년이 되어 있었다.

마침내 1876년 11월 4일 칼스루에 대공의 궁정극장에서 브람스의 첫 번째 교향곡이 공개되었다. 초연 직전까지도 브람스는 지휘를 맡은 오토 데소프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작품을 다듬었고, 초연 후에도 중간 악장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추가로 손질했다. 그 기나긴 과정과 고된 작업의 결과로 이 교향곡은 지나칠 정도로 풍부하고 다채로운 악상과 극도로 치밀하고 단단한 구성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 탓에 이 작품에 너무 심각하다든가, 유창함이 부족하다는 등의 비판이 가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베토벤의 뒤를 이을 '교향곡의 거인'의 출현을 고대했던 당대의 청중과 비평가들은 소화하기에 결코 만만치 않은 이 곡을 환영했다. 특히 당대 최고의 지휘자 한스 폰 뷜로는 이 곡을 '열 번째 교향곡'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물론 베토벤이 남긴 '불멸의 아홉 곡'을 계승할 만한 걸작이라는 의미였다.

제1악장 : 서주가 붙은 장대한 소나타 형식을 취한 첫 악장은 마치 '등 뒤에서 들려오는 거인의 발소리'를 암시하듯 의미심장한 팀파니의 연타로 출발한다. 브람스는 이 곡을 쓰면서 내내 '베토벤의 걸작에 견주어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써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고, 그 지난한 목표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을 고뇌하고 분투했다. 그래서일까? 이 악장에서 우리는 베토벤풍의 투사적 열기와 브람스 특유의 신중한 사유가 장엄하게 교차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기상과 의지를 담은 열정, 고뇌 어린 우수의 뒤편으로 그윽한 여운을 남기며 서서히 잦아든다.

제2악장 : 가슴 시린 서정과 애상이 공존하는 느린 악장이다. 앞선 악장에서 부각된 무겁고 어두운 고뇌의 그림자가 시리도록 아름다운 오보에와 바이올린 솔로가 빚어내는 은은한 광휘와 온화한 기운 속에서 차츰 정화되어 가는 듯하다.

제3악장 : 한결 활기차고 유머러스한 표정, 유연한 리듬을 지닌 브람스 특유의 춤곡 악장이다. 이것은 혹시 밝은 미래를 향해 손짓하는 희망의 노래일까? 그러나 브람스는 그 결론을 잠시 유보해둔다.

제4악장 : 다시금 느리고 신중한 서주로 출발한다. 서주의 전반부는 c단조의 아다지오로 때론 불안하고 때론 격앙된 모습으로 아직 걷히지 않은 지난날의 그림자를 암시하는 듯하다. 그 그림자는 C장조, 피우 안단테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차츰 걷히기 시작한다. 그리고 브람스가 클라라 슈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높은 봉우리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당신에게 천 번의 인사를'이라는 가사를 붙여 보냈던 목가풍 호른 선율에 이끌려 우리는 어느새 장려한 빛의 들판에 서있게 된다.

마침내 주부로 진입하면, 찬가풍으로 울려퍼지는 주제선율의 도도한 흐름을 타고 한층 확신에 찬 투쟁이 전개된다. 그리고 치열한 전투 끝에 다다르게 되는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는 드디어 영광스런 승리를 쟁취한 영웅의 장쾌한 함성이 드높이 울려 퍼진다. 이 눈부신 절정 이르기까지의 뜨겁고 힘찬 전개과정을 베토벤적 모토('어둠을 헤치고 광명으로')에 대한 오마주이자, 오랜 시간 브람스 자신을 옭아매고 있었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리라.

글 황장원
(음악 칼럼니스트 /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MYUNG-WHUN CHUNG

conductor

© Matthias Creutziger

정명훈

정명훈은 1974년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하며 피아니스트로서 음악적 커리어를 시작했다. 뉴욕 줄리아드 음악원과 매네스 음악대학에서 공부한 뒤 1979년 LA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이었던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의 보조 지휘자로 발탁되었고, 그로부터 2년 후 부지휘자로 임명되었다.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음악감독(1984~1990), 피렌체 테아트로 코뮤날레 수석객원지휘자(1987~1992),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극장 음악감독(1989~1994), 산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1997~2005)를 역임했다. 2000년에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을 맡으며 파리로 활동의 본거지를 옮겼다.
라 스칼라, 라 페니체 극장을 포함하여 이탈리아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2011 년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역사상 최초의 수석객원지휘자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일본의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명예 지휘자, 그리고 서울시립교향악단 전 음악감독의 역할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음악적, 사회적 대의에도 전념하고 있다.

2019/20 시즌에는 라 페니체 극장에서 <돈 카를로>,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의 유럽과 아시아 투어를 비롯하여 BBC 프롬스에도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이외에도 라 페니체 극장의 신년음악회와 2020 말러 페스티벌에서의 말러 교향곡 3번과 9번 연주를 비롯한 로열 콘세르트헤바우와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도쿄 필하모닉,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산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라 스칼라 필하모닉과도 정기적인 협연을 이어간다.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며 쌓아온 그의 수많은 예술적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등급의 문화예술공로훈장인 코망되르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7년에는 이탈리아의 국가공로훈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1995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으며, 1996년 금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2008년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친선대사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CLARA-JUMI KANG

violin

© Marco Borggreve

클라라 주미 강

흠 잡을 데 없는 우아함과 균형감을 갖춘 아티스트로 평가받는 클라라 주미 강은 2010년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를 우승했고 서울 국제 콩쿠르(2009), 센다이 콩쿠르(2010)에서 우승했다. 다섯 살에 함부르크 심포니에서 협주곡으로 데뷔했고,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로테르담 필하모닉,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유럽 정상 악단과 연주했다. 미국에선 애틀랜타, 뉴저지, 인디애나폴리스와 협연했고 그 외 지역에선 마린스키, NHK 심포니, 도쿄 메트로폴리탄, 베이징 NCPA 등과 공연했다. 2012년 대원음악상, 2015년 금호 음악인상을 수상했다.

발레리 게르기예프, 리오넬 브랑기에, 안드레이 보레이코, 크리스토프 포펜, 블라디미르 스피바코프, 유리 테미르카노프, 기돈 크레머, 정명훈, 하인츠 홀리거, 가즈키 야마다와 같은 일류 지휘자들과 협업했다.

슈베르트 '마왕'과 이자이 독주 소나타가 수록된 첫 독집 앨범 '모던 솔로'(데카)를 2011년 출반했고, 2016년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브람스, 슈만 바이올린 소나타(데카)를 출반했다.

2019/20 시즌 주요 일정으로 보레이코/바르샤바 필하모닉, 포펜/쾰른 체임버, 베데르니코프/효고 아트센터 오케스트라, 아르밍/퍼시픽 심포니, 게르기예프/마린스키 오케스트라, 정명훈/서울시향 공연이 있다. 독주와 실내악 주자로서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스펙트럼 콘서트 시리즈로 복귀한다. 평창 실내악 축제에 참가하며 마르바오 축제에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김선욱과 함께 한다.

독일에서 음악 가정에서 태어났고 세 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해 만하임 음악학교에 최연소 입학생이 됐다. 뤼벡음대에서 자카르 브론을 사사했고 줄리아드 음대 도로시 딜레이 문하에서 일곱 살의 나이에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한국 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김남윤을 사사했고 뮌헨 음대에서 크리스토프 포펜과의 연구를 통해 고등교육을 완성했다. 삼성문화재단의 임대를 통해 1708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Ex-Strauss'를 사용 중이다.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서울시립교향악단

1945년 설립된 고려교향악단을 연원으로 하는 서울시향은 2005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이후, 첫 음악감독인 정명훈 지휘자의 리더십 아래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국제적으로 성장하였고, 2020년 핀란드 출신의 세계적 지휘자 오스모 벤스케(Osmo Vänskä)를 제2대 음악감독으로 맞았다.

음악감독 오스모 벤스케, 수석객원지휘자 티에리 피셔와 마르쿠스 슈텐츠, 세계적 명성의 객원지휘자, 협연자가 함께하는 정기연주회는 탁월한 음악적 성과와 프로그래밍으로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안 보스트리지(2018), 크리스티안 테츨라프(2019), 호칸 하르덴베리에르(2020) 등 세계적 음악가를 올해의 음악가로 영입하며 예술적 안정성과 수월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서울시향은 전문 공연장에서의 콘서트 외에도 다양한 시민공연을 펼치며 서울시민과 호흡하고 있다. 병원, 교도소, 구민회관등을 방문하는 '우리동네 음악회', '광복절 기념 음악회', 한강변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야외공연 '강변음악회' 등을 펼치고 있다. '우리아이 첫 콘서트', '교과서음악 영상화' 등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공연관람 고객을 위한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차세대 지휘자 양성을 위한 '지휘 마스터클래스', 악기 전공생을 위한 '오케스트라 마스터클래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는 물론 전문 연주자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향은 2007년 태국 및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유엔의 날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2009년 벨기에 클라라 페스티벌, 2010년 이탈리아, 독일, 체코, 러시아 등 유럽 4개국 9개 도시 투어, 2011년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등 유럽 페스티벌 투어, 2012년 로스앤젤레스 등 북미 투어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2013년 4월에는 서울과 베이징의 자매도시 2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의 국가대극원 무대에 올랐으며, 2014년 8월에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등 클래식의 본고장 유럽 무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15년에는 중국 국가대극원과 일본 산토리홀 초청 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2018년 11월에는 유럽 순회공연을 통해 파리, 루체른 등에 최초로 진출하였고, 2019년 10월 러시아 3개 도시를 순회공연하며 명실공히 아시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로서의 위상을 다졌다.

서울시향은 2011년 아시아 교향악단으로는 최초로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과 계약을 맺어 총 9장의 음반을 출시했다.

Daewon Artist Fellowships . since 2005

Daewon Music Awards . since 2006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 기업의 사회공헌과 메세나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대원문화재단
DAEWON Cultural Foundation

www.daewonculture.org